

Japan Weekly Digest

2012. 10. 20 ~ 2012. 10. 26

① 주간 경제 초점

- 일본경제의 불안과 경기부양책 추진

② 산업 및 통상 전략

- 일본의 FTA정책, 교착상태
- 일본 금융기관들, 3대 성장분야 강화
- 경제산업성, 의료기술의 수출지원

③ 일본기업의 협력 동향

④ 주요 연구보고서 정보



사단 한일경제협회

Korea-Japan Economic Association

※ 자료제공 : (재)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

※ 본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(<http://www.kje.or.kr>)에서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
있사오며, 본 자료를 이메일로 받기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(Tel.02-3014-9888)

1 주간경제초점 : 일본경제의 불안과 경기부양책 추진

- 일본경제가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임에 따라 재정·금융 양면에서의 경기부양책이 추진

□ 정책 추진 배경 : 일본경제의 불안국면

- 정책 추진 배경에는 경기 및 물가의 위협이 한층 커지고 있는 점임. 수출과 생산 부진이 두드러져, 3/4분기는 5분기 만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라앉을 것이라는 견해가 강함.
 - 일·중 관계 악화가 대중수출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 등 새로운 불안요인도 나오고 있음.
 - 일본 재무성이 22일 발표한 무역통계에 의하면 2012년도 상반기(4~9월) 무역적자는 3조 2,189억엔으로 과거 최대수준임. 수출은 중국의 경기감속으로 대중수출이 감소. 9월 중순이후부터는 일본제품의 불매운동으로 자동차의 수출 감소가 두드러짐.
 - 수출부진에 따라 많은 민간경제연구소들이 3/4분기 GDP성장율도 하향 수정하는 작업에 착수
 - 일본정부는 8월에 2012년도 실질성장율 전망치를 2.2%로 공표했는데, 이는 가을 이후 세계경기회복에 따른 수출주도의 성장 시나리오였음. 그러나 해외경기 감속에다 일·중 관계 악화까지 겹쳐 이와 같은 시나리오가 실현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.
- 한편, 일본은행은 9월 30일 발표한 경제물가정세 전망에 의하면, 사실상 인플레이 목표나 다름없는 1%에 이르지 못할 공산이 큼. 디플레 탈출을 위해서는 추가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점하고 있음.

□ 일본은행 2개월 연속 추가금융 완화조치

- 일본은행은 10월 30일 정책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추가 금융완화조치를 실시할 방침임. 국채 등 자산매입기금 규모를 10조엔 늘리는 안을 중심으로 검토.
 - 추가 금융완화는 국채 등의 매입기금한도를 80조엔에서 90조엔으로 늘리는 방법으로 이루어짐.

- 일본은행은 불과 한 달 전인 지난달 10조엔의 국채매입자금을 증액한 바 있음. 2개월 연속 추가 금융완화는 2003년 5월 이후 9년 반 만에 처음임. 보통은 기간을 두고 효과를 지켜보게 되는 데, 이례적인 대응이라 할 수 있음.
- 적자국채발행법안 성립이 늦어져 예산집행이 순조롭지 못하고 있는 점도경기의 리스크로 작용.
- 일본정부는 예비비를 사용한 경제대책을 검토 중. 일본정부나 시장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금융정책 면에서도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소리가 높음.

□ 7,500억엔 규모의 경제대책

- 일본정부는 26일 각의에서 노다 총리가 지시한 새로운 경제대책의 제1탄을 준비. 금년도 예산의 예비비를 사용키로 함.
- 내년도 이후 예정된 일본재생전략의 사업 중 일부를 앞당겨 실시하는 외에, 지진 복구, 대규모 재해 대책 등, 총 7,500억엔 규모
- 국가부담 분은 4,000억엔을 약간 넘는 규모로 금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경제위기대응-지역활성화 예비비와 부흥예비비 등으로 국가의 부담 분을 충당
- 노다 총리는 새로운 경제대책과 관련하여, 디플레의 조기탈출,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응을 가속화할 계획임을 강조
- 중국경제의 감소 등을 배경으로 일본경제가 불안국면을 맞고 있는 가운데, 일본정부는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기다리지 않고, 실행 가능한 경제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는 구상임.
- 내각부는 이번 경제대책 제 1탄의 GDP증대효과는 0.1%에 그칠 것으로 시산. 고용창출효과는 약 4만명 정도. 26일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마에하라 경제재정상은 「정책효과는 거의 년도 내에 나타날 것」임을 강조

② 산업 및 통상 전략

□ 일본의 FTA정책, 교착상태

- 일본경제신문은 일본의 FTA정책이 교착상태에 빠지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음. 여야 쌍방에서 신중론이 거센 TPP의 추진력이 후퇴. 독도 및 센카쿠도 등 영토문제로 인한 관계악화로 한국이나 중국과의 FTA교섭 개시도 늦어질 공산이 커지고 있다는 것
 - 11월중에 개최될 동아시아정상회담은 일본의 FTA의 틀을 넓히는 데 분기점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음.
- 일본이 TPP교섭 참가를 위한 관련 국가들과의 사전협의를 선언한지 1년이 경과했으나 농업계의 반대론을 배려, 아직 정식으로 교섭참가를 표명하지 않고 있음.
 - 일본정부는 농업에 대한 영향을 완화,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「TPP대책예산」으로 향후 10년간 2조~4조엔을 투입하는 안도 부상하고 있음. 그러나 농림수산성은 대책비의 전제라 할 수 있는 구조개혁의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기미가 없음.
- 일본·호주EPA는 교섭개시로부터 5년반 경과했으나 쇠고기, 설탕 등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호주 측과 타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음.
- TPP에 신중한 민주당 의원들은 참가표명을 막기 위해 탈당을 무릅쓰는 의원들이 상당수 있다고 함.
 - 노다 총리가 참가를 표명하는 경우 탈당이 더 늘어나, 정권이 유지되기 어렵도록 견제하는 분위기도 있음. 정부 내에는 중의원해산 직전 표명할 것으로 기대하는 목소리도 일부 있으나 장애물은 높을 듯
- 일본의 참가표명에 대한 미국의 신용정도도 문제임. 참가의욕을 보이고 있는 노다 총리에 대하여 자민당은 성역 없는 관세철폐를 전제로 한 TPP에 반대한다는 방침임. 미국은 정권교체 가능성도 주시, 대일불신감을 높일 우려도 있다는 것.
- EU와의 EPA교섭도 불투명한 상태임. 일본은 금년 중 교섭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, 프랑스나 이탈리아 등 자동차산업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은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음.

- 일본은 한국, 중국과는 11월 18~20일 예정된 동아시아서미트 기간 중 FTA교섭개시 합의를 시야에 두어왔음.
- 그러나 센카쿠도, 독도 등을 둘러싼 대립으로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 일정이 오리무중인채, 사무레벨에서는 「합의문서의 배포만」이라는 전대미문의 궁여지책도 모색하기 시작했다고 일본경제신문은 전하고 있음.

□ 일본 금융기관들, 3대 성장분야 강화

- 일본의 은행들이 성장분야로 기대되고 있는 의료, 간병, 재생에너지, 농업 분야에 대한 용자를 강화하고 있음. 영업종의 신규 참여나 설비투자 등으로 자금수요 크게 기대될 수 있기 때문임.
- 주로 성장분야를 지원해주고 있는 일본은행의 대출제도를 이용하고 있는데, 용자규모가 2조 3,000억엔을 웃돌고 있음.
- 용자뿐만 아니라 전문가 육성도 속도를 내고 있음. 성장 3대 분야에 자금이나 전문 인력을 중점 배분하여 금융 측면에서 경제성장을 지원
- 특히 메가뱅크(초대형은행)들이 주력하고 있는 것은 의료분야로 병원의 경영개혁에 필요한 자금을 용자하고 있음.
- 병원은 사회보장과 조세의 일체개혁으로 2012년까지 전문성이나 기능을 한층 높일 필요가 있기 때문임. 구급의료나 수술 등 고도의 치료에 특화하는 병원에 최신설비 도입을 제안. 투자계획을 수립, 설비갱신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
- 간병 분야에서는 미쯔이스미토모은행이 10월부터 이업종 및 간병·시설운영사업에 대한 자금지원 상담에 응하고 있음.
- 재생가능에너지분야에서는 전량매입제도가 시작된 7월 이후 설비투자 의욕이 높아지고 있음. 미즈호파이낸셜그룹은 총 200건에 6,000억엔 규모의 신규 용자를 검토 중이며, 8월에는 태양광발전소 사업에 대한 용자안건을 처리
- 농업분야에서는 미즈비시동경UFJ은행이 상사와 제휴, 농산물이나 식품의 수출지원에 나서고 있음.
- 이들 대형은행이나 지방은행이 3대 성장분야에 주력하고 있는 것은 일본 국내에서 성장이 예상되는 몇 안 되는 시장이기 때문임.

- 일본은행이 2010년에 시작한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제도도 3대 성장분야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에 이어지고 있음.
- 일본은행이 18개 성장분야에 대한 저리자금대출제도에 의해 금년 6월까지 대출한 실적은, 환경에너지산업, 의료간병 건강관련산업, 농림수산업을 포함한 3개 분야의 점유율이 48.2%로 절반에 가까움.

□ 경제산업성, 의료기술의 수출지원

- 경제산업성이 성장전략의 기둥으로 보는 의료 분야에서 기업들의 해외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민·관 대화채널을 잇따라 창설.
- 신흥국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생활습관병에 대한 대응이나 암 치료, 면역성능이 높은 병원 등 일본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술을 중심으로 수출확대를 목표
- 현재 일본의 의료시장은 27조엔 정도이며, 경제산업성은 20조엔 규모의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을 것으로 시산
- 경제산업성이 기업과 연대, 의료기기 및 서비스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지역은 터키, 사우디아라비아, 미얀마, 브라질, 중국, 이라크 등 약 10개국.
- 현지정부의 고위층이나 기업의 간부 등을 조회, 민간파견단을 준비 중. 현지에서 조언가능한 의사도 파견하여 연수회 등을 개최
- 생활습관병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인도네시아에서는 치료가능한 병원이 없고, 국민의 40%가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점에 착안, 의료기기수출이나 전문 인력 육성 외에, 경제산업성은 일본의 공제보험 소개도 검토 중
- 중동에서는 식생활 변화 등을 배경으로 암이 주된 사인임에 착안, 경제산업성은 일본의 방사선의료에 대한 수요가 크다고 판단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보건성 간부들과의 대화채널을 구축, 현지시장을 조사 중

3 일본기업의 협력동향

일본기업	발표일자	업종	대상국가/기업	사업형태/내용
스미토모전기 공업	2012.10.20	초전도송전 사업	독일,러시아	사업참여/초전도케이블의 기 간재료인 초전도선을 공급, 2015년 이후 상용화
JX 일광일석 개발	2012.10.20	가스전 개발	호주	직접투자/현지 석유개발회사 로부터 가스전 권익 10%취득
토요타자동차가	2012.10.23	포크리프트	미국/카스케이 드	직접투자/기업매수(TOB로 완 전자회사화),매수액은 약 607 억엔
카네마쓰, JFE	2012.10.23	강관 가공· 판매	미국/베노와	직접투자/공동으로 기업매수, 매수가액 약 70억엔
코마쓰	2012.10.23	기계부품	스웨덴	직접투자/임업기계부품메이커 및 판매 2개 기업 매수, 매수 가 수십억엔
산토리	2012.10.23	음료	미국/펍시코 베 트남 현지법인	직접투자/51%출자, 투자규모 약 200억엔
닛산자동차	2012.10.24	자동차	태국	직접투자/연산 20만대 규모의 자동차공장 신설, 투자규모 약 300억엔
노무라홀딩스	2012.10.24	인프라투자	인도	직접투자/투자펀드 설립, 펀드 규모 약 400억엔
동풍기업	2012.10.24	변속기	독일/게트러그	자본제휴/합작기업 설립
스미토모전공	2012.10.24	전기자동차 용 커넥터	독일/레마	자본제휴·공동개발/합작기업설 립, 출자비율 36%
소프트뱅크	2012.10.24	풍력발전	몽골/뉴컴	자본제휴/합작회사 설립, 출자 비율 49%, 총공사규모 500억엔
마루베니	2012.10.25	풍력발전	미국/프랑스전 력공사의 미국 자회사	자본제휴/출자비율 50%, 총사 업비 약 360억엔
이온	2012.10.26	소매업	프랑스/칼폴	직접투자/사업(말레이시아)매 수, 매수가액 약 200억엔
히노자동차	2012.10.12	자동차	말레이시아	자본제휴/합작기업 설립, 투자 규모 4억 5천만엔
오우지홀딩스	2012.10.12	단보르상자	인도	자본제휴/합작기업 설립, 출자 비율 60%, 투자규모 22억엔

* 자료: 일본경제신문기사에서 정리

4 주요 연구보고서 정보

(1) 『은행이론과 금융위기』 일본은행금융연구소, 10월23일

*출처:<http://www.imes.boj.or.jp/research/papers/japanese/kk31-4-4.pdf>

(2) 『사회보장과 준시장의 관점』 농업공제종합연구소, 10월23일

*출처:http://www.nkri.or.jp/PDF/2012/sogo_65_mano.pdf

(3) 『엔고와 일본의 국제경쟁력』 경제산업연구소, 10월24일

*출처:http://www.rieti.go.jp/jp/columns/a01_0356.html

(4) 『일미기업협의회 : 리더에 대한 보고서』 경제산업성, 10월26일

*출처:<http://www.meti.go.jp/press/2012/10/20121025001/20121025001-4.pdf>

(5) 『수출부진의 배경 : 수출수익의 하방굴절과 직접투자의 기능변화』
미즈호종합연구소, 10월 26일

*출처:<http://www.mizuho-ri.co.jp/publication/research/pdf/insight/jp121025.pdf>